

종교와 농경문화의 중심도시, 합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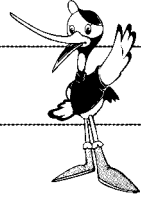
이인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지리적 특성 및 현황



〈사진 1〉 합덕읍의 전경

충청남도의 최북단 당진군의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합덕읍은 면적 51.32km², 인구 10,923명(2007년 기준)의 작은 도시이다. 대전에서 공주, 예산을 거쳐 당진으로 향하다 보면 드넓은 평야 지대를 만나게 되는데 합덕은 바로 이 예당평야의 한 부분인 소들강문 평야(우평·강문평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합덕읍은 삼교천, 무한천, 곡교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후빙기 해수면 상승에 인한 퇴적작용으로 넓은 규모의 범람원과 해발 10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형성되어 있다. 신흥리, 점원리, 도리, 옥금리, 신석리, 신리 등은 삼교천의 간석지성 충적평야에 형성된 마을들로 집촌의 형태를 띠고, 합덕리를 포함한 운산리, 소소리, 도곡리, 석우리, 성동리, 대전리, 대합덕리 등은 낮은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 마을들로 배산형태로 가옥들이 입지하고 있다. 합덕읍의 산업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농업에 58.3%(2005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보인다.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합덕읍은 겉으로는 다른 농촌과 다를 바 없으나, 오래 전부터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라고 할 만큼 천주교 세력이 강한 곳이었다. 합덕리 주민의 96%가 천주교 신자이며, 그동안 서른 명 이상의 신부를 비롯하여 많은 수사와 수녀를 배출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마을이다.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의 연고지로도 알려져 있다.

합덕읍은 남진을 관통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국도32, 34호선 등이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성하여 수도권 및 중부권, 호남권과의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합덕읍 중심시까지 부근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 상권과 연계된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 내부의 교통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합덕읍은 합덕성당(도기념물 제145호), 합덕제(도기념물 제70호) 등 몇몇 상징적 경관들이 합덕의 장소 특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관요소들을 통해 합덕이라는 장소가 종교와 농경문화의 중심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유래 및 역사

합덕읍은 고려시대 덕풍현(德豊縣)에 소속된 합덕부곡(合德部曲)이었는데, 고려 제25대 충렬왕 24년(1298년)에 합덕현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조선 제7대 세조 때 폐현되어 홍주목(洪州牧)에 속했으며, 고종 32년(1895년) 변천군(沔川郡)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군·면 통폐합에 따라 합덕면이라 지칭되면서 당진군에 편입된 이후 1973년 합덕읍으로 승격되었다.

특히 합덕리의 지명은 합덕제(合德堤)와 관련해 유래했다고 하는데, 합덕제의 보수, 개축 작업 때 참여했던 장정들의 '합심적덕(合心積德)'을 의미하는 '합덕(合德)'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합덕제가 갖는 실제적 필요성과 상징적 의미가 마을 지명에까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생기기 전 합덕의 소들장문 평야는 삼교천의 곡류가 심하고 조석의 영향으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많이 입는 '갯땅'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 농민들에게 논농사를 위한 수리·배수 시설의 완비와 삼교천의 제방 축조가 가장 큰 숙원과 과제였고, 합덕이라는 지명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연

원이 지명에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합덕마을은 갑조하천인 삽교천의 바닷물이 내포평야 깊숙이 들어와 합덕읍 구양도를 거쳐 예산군 고덕면 구만포에까지 이르기엔 예부터 수상교통이 편리하였다. 그리하여 삽교천 변에는 구만포·압두포(합덕읍 합덕리)·유궁진(합덕읍 전원리 궁원마을), 범근내포, 우평포, 대각포 등의 포구가 많아 조운선과 자토선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러나 육상교통에 있어서 1900년 초까지 합덕지역은 낭산군 내에서 길다운 길이 없던 오지로 인식되었으나, 1931년 장항선의 개통, 1933년 구양교의 준공과 더불어 현재의 32번 국도가 완공되자 수상교통 외에도 철로와 도로라는 육상교통을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되었다.

합덕읍에는 한때 예당평야에서 제일 큰 시장이었던 합덕시장(합덕읍 운산리)이 있다. 합덕시장은 원래 버그내장이라 하였고, 버그내는 삽교천의 최하류를 옛날에 범근내포라고 부르면서 유래했다. 야마 내포지방의 중심포구로서 각종 물산의 교류가 활발하였기에 버그내장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현 구합덕성당이 건립되면서 많은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사람들이 합덕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합덕 지역은 일제 말부터 해방 이후 인천항을 거점으로 서산과 강진지방의 각 포구를 연결하는 연락선이 취항하여 주로 마곡을 반출하는 포구로서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토사의 퇴적, 육로의 발달과 삽교천의 제방 축조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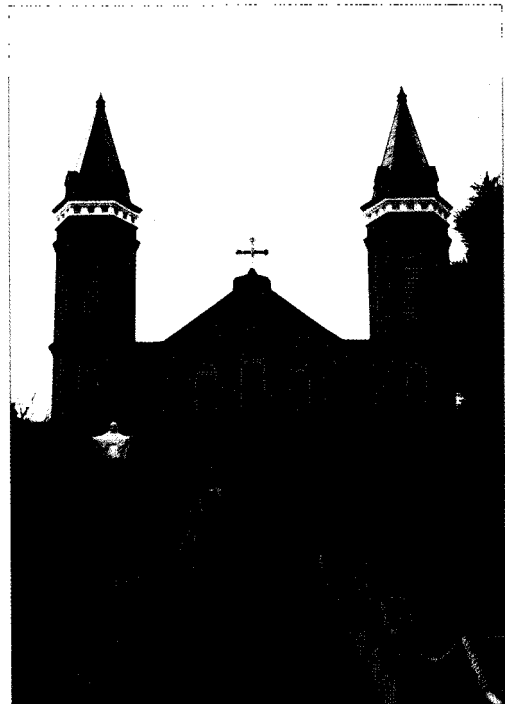
3. 천주교 전래의 거점, 합덕읍

합덕성당

합덕읍이 위치한 내포지역은 19세기 초반부터 천주교의 포교지로 활발했던 곳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천주교 박해로 인해 선교를 펼치던 외국인 신부들이 체포되는 사건들이 빈번하였는데, 1886년 한불수교에 의해 천주교 포교가 자유로워지자 산간에 숨어들었던 천주교도들이 평야지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퀴를리에 신부가 1898년 합덕읍 합덕리 대지를 매입하여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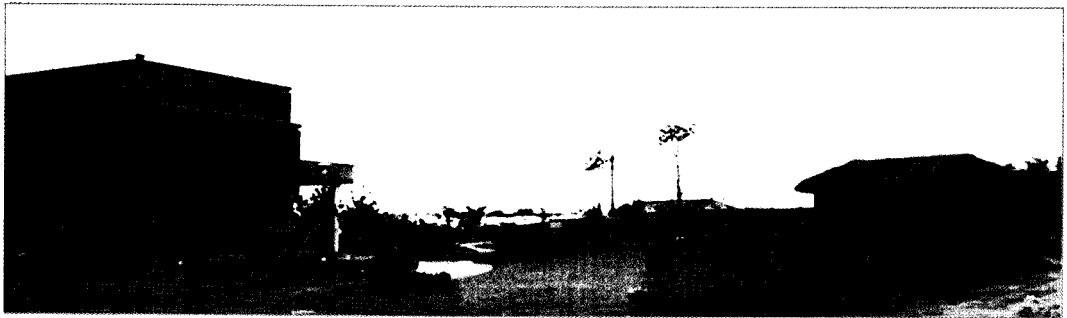
겸 사제관을 짓기 시작하여 1899년 합덕성당을 완공하였고, 이리하여 천주교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합덕에 성당을 마련한 퀴를리에 신부와 그의 후임자들은 교회의 재정 자립과 천주교 교우촌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인근의 농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이 토지들을 합덕리를 비롯한 타 소재지 인근 마을의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인 모두를 천주교회에 다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합덕리의 주민들은 모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타지의 천주교인들도 소작을 얻기 위해 합덕리로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합덕리의 주민들은 집과 땅을 모두 교회에 의지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충실한 신앙생활로 이어졌다. 이후 천주교회는 근현대를 거치는 동안 합덕마을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체 역할을 하면서 합덕 주민들의 결혼, 제사 등의 생사의례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합덕마을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30여 명의 신부와 50여명의 수녀를 배출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마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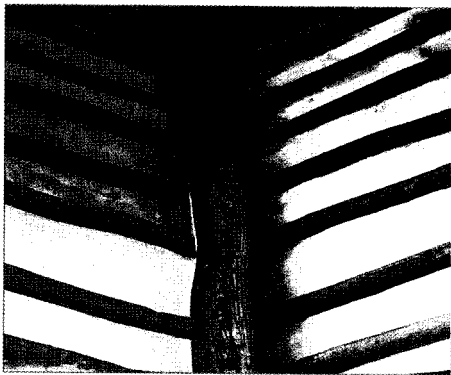
〈사진 2〉 합덕성당

신리공소

구합덕 본당에서 남쪽으로 6km지점에 있는 신리공소 건물은 1866년 천주교 박해 당시에 조선 교구 제5대 교구장 안토니오 다블뤼 안 주교가 거주했던 곳이다. 안 주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고자 출판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책자 번역 및 교회사를 엮었다.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때 순교한 주교와 신부, 신도들의 행적을 조사 기록하고 한편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사를 집필하였는데 이곳에서 기록·수집한 순교사 및 역사 자료 7권이 1862년



〈사진 3〉 신리공소의 전경



〈사진 4〉 신리공소의 대들보

10월 홍콩의 리브와 신부를 통하여 파리로 전해져서 '한국교회사' 2권이 나오게 되었으니 한국 교회사에 유서가 깊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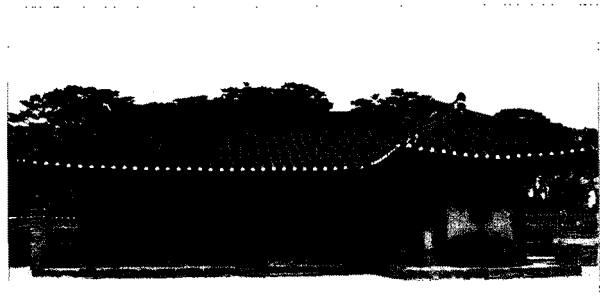
1863년 화재로 많은 시적과 함께 인쇄소가 소실되었는데, 그 때 건져낸 대들보가 현 공소 강당의 대들보로 사용되었고 그 위에는 '1815년 상량'이라는 글귀가 남아 있다.

솔미성지

솔미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서, 그가 박해를 피해 용인의 골배마실로 이사갈 때인 7세까지 살았던 곳이다. '소나무가 우거진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솔피는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1814년 순교), 종조부 김한현(1816년 순교), 부친 김제준(1839년 순교) 그리고 김대건 신부(1846년 순교) 등 4대의 순교자가 살았던 곳이며, 김대건 신부가 전세계 카톨릭 교회의 공경의 대상이 됨에 따라 역사·종교적 중요한 문화유적지로 부각되었다. 합덕읍의 북쪽 경계와 접해 있는 우강면 송산리의 솔미성지는 '솔미성지-합덕성당-신리공소



(조선비밀교구청)을 잇는 성지순례코스
의 개발로 종교관광의 자원 발굴 및 지
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어 그
가치가 주목되는 곳이다.



〈사진 5〉 솔피성지 내 김대건 신부 생가

4. 수리농경문화의 역사적 상징, 합덕제

후백제를 세운 걸현이 신라말기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합덕제는 곡창지대인 합덕평야를
관개해주던 방죽이었다. 합덕제(合德堤)는 합덕지(合德池), 연제(蓮堤)라고도 불리는데, 조선시대
에 김제 벽골제, 연안 남대지 등과 함께 3대 제언(堤堰)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였다. 합덕제의 최초 기록은 조선시대에 『세종실록지리지』에 언급되었고, 후에 『조선왕조
실록』 등 각종 고서에서 빠짐없이 기록되면서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1800년 이후에는 합덕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된 모습을 제 주변에 남아 있는 비석군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일제 때
(1913)에는 제 내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수문을 신설하였다.

연이 많아서 그 꽃이 매우 장관이었으며, 납생이가 많이 있어서 날이 좋을 때는 저수지 가에
나와 즐지어 앉은 것이 또한 구경거리여서, 사람이 많이 늘어앉은 것을 보면 "합덕 방죽에 즐 납
생이 앉듯 하였다"는 속담이 있다.

이후 지역의 관개 농경에 중요한 젖줄 역할을 하던 합덕제는 60년대 초 예당저수지가 축조되
면서 관개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마침내 내부는 농지로 전용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제방은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원형이 잘 남아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제방의 총 길이는 약 1,770m에
달한다. 제방 남쪽에 군도가 개설했기 전까지는 합덕에서 고덕으로 통하는 주요한 간선도로의 기
능도 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합덕제에 대한 역사성을 감안하여 도기념물 제70호로 지정하였다.



〈사진 6〉 합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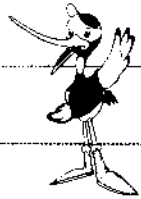
〈사진 7〉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합덕제 옆으로는 종합농경문화박물관인 수리민속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 3대 저수지 중 하나였던 합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5년에 개관하였고, 부지면적 16,089㎡, 연건축면적 869㎡,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2개의 전시실과 수리체험장 등이 있다. 합덕 수리민속박물관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수리농경문화를 이해하고, 선조들의 자취를 느껴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미디어처를 통해 합덕 지역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하고 있다.

5. 합덕읍의 발전과제

2025 당진군 도시기본계획에서 합덕읍은 3개 권역 중 동남생활권(합덕·우강 소생활권)에 속하며, 고부가가치형 생태영농과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합덕읍 주민들의 주된 생업은 미작농업이지만 정부의 수매가는 하락하고 쌀 소비는 줄어들어 마을 주민들의 수입은 예전 같지 않다. 그렇다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특용작물 등의 재배를 하는 농가는 극소수이며, 주민들이 점차 고령화 되고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합덕이 남부권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형 생태영농으로 나아가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농어촌의 소득향상과 연계한 민박, 삼베, 약쑥, 단호박, 주말농장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특색마을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도마을과 농업인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합덕은 합덕성당의 교세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다. 합덕성당의 신자 수가 합덕리 주민의 수와 비례하여 증가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시설과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아 이농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이 유출되면서 과거의 종교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독특한 마을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합덕읍은 성지순례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이 높은 합덕성당, 솔피성지, 신리성지 등 종교문화자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라는 합덕 고유의 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화와 천주교 문화의 메카라는 장소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지 등 천주교 관련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에 앞서 본래 모습의 발굴과 복원, 역사적 사실의 재규명을 통한 원형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홍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제작, 공동화장실 개선, 주차장 확보 등의 기존 상권의 재정비를 통해 성지순례객들을 중심지로 유인함으로써 중심상권의 상업·서비스의 재생과 합덕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농촌과 연계된 농특산물을 육성시켜 자생력 있는 경제기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합덕읍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서해안 철도(계획) 등의 건설로 당진 및 타 도시간의 교통시간 단축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요인이 이 지역 산업의 매력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승수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및 대전권 생활권역에 포함되는 근거리 지역으로 부각되어 자족적인 지역 발전을 통한 당진군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당진군, 당진군지.
2. 대원사, 당진 합덕마을, 2008.
3. 당진군, 당진통계연보, 2008.
4. 당진군 합덕읍,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중장기 발전계획, 2007.
5. 당진군 홈페이지, www.dangjin.go.kr